

사설

회기 연장한 조계종 총회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총회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듯이 비관적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중앙총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의 입법기구이다. 조계종의 중추적 핵심기관으로서 불교중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총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욱 컸었다. 고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하여 교단을 외호하여 준 수많은 신도들의 시운을 깊이 느끼고 있는 모습도 찾아 힘들었다. 있었던 좋은 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그로인한 파행의 연속이었다. 혹자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무비판적으로 서구제도를 모방함으로써 승가를 타락시키는 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번 제118회 임시총회부터 종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해진 회기를 재우고도 모자라 회기를 연장하여 종무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를 다룬 것은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일이다. 또한 이전 총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사문제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질타하고 총무회의 해명을 요구한 것도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총회의원들도 이전 총회와 달리 종헌·종법에 의거해 사안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점은 적어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점에서 세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개혁회의 이후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는 총회를 바라보면 이 나라 불교의 발전을 기대하여 보는 것도 이제 한갓진 망상이 아니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총회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아 과시적인 경쟁적 질의가 많아 회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국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받아 종단 문제에 따른 총회 특별위원회가 많은 것도 일의 분담을 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집행부가 허약한데 따른 총회의 세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려운 일을 우선순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려는 총회와 이에 의지하려는 집행부의 의욕성을 심화시키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총회가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보여줄길 기대한다. 적어도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란 점이나 조계종의 영향력이 한국 불교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총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그에 따른 능동적인 접근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 만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간접적 요구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보다 발전된 총회로 거듭날 때 한국 불교는 물론 세계 인류의 정신을 밝혀주는 불교가 되리라 본다.

열린 마당

종립학교 포교대책

현장에서 - 고 우 익 <능인교법사>

미래불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의 청소년 불자가 그들이. 그러므로 오늘의 불교청소년의 모습은 내일의 불교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다. 그동안 얼마나 매아리 없는 의침을 외쳤던가. 몇몇 청소년 포교에 뜻을 둔 이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열렬하게 그 자리를 메꾸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개혁종단 출범과 함께 청소년 포교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해 지정(96년)' 청소년 법요집 발간,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 집 발간, 전국적인 불교청소년 단체의 조직 등 산적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의 장은 바로 학교이다. 단위 사찰에서 20명~30명의 청소년 불자를 모으

기가 얼마나 힘든가는 해 본 사람은 다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수천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하루종일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다. 포교의 황금어장은 바로 여기다. 교회의 실천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에서 학교 포교의 대표



양각색이다. 어느 종립학교에도 교원 조직표상에 아예 교법사직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우리끼리 필요에 따라 만들어 그때 그때 역할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물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법사로 불리우는 그들은 그저 원력과 신심 하나만으로 삼보장재를 털어 지은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문하며 앞만 보고 뛰는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 교화 황금어장 교법사 처우 개선 서둘러야"

다행히 개혁종단 출범과 함께 청소년 포교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해 지정(96년)' 청소년 법요집 발간,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 집 발간, 전국적인 불교청소년 단체의 조직 등 산적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의 장은 바로 학교이다. 단위 사찰에서 20명~30명의 청소년 불자를 모으

적인 곳은 바로 종립학교이다. 그곳에서 막중한 교화 사명을 수행하는 이는 소위 '교법사'라 불리우는 선생님(?)들이다. 그러나 종단내에서 무책임하게 불리우는 그 교법사는 과연 종헌·종법에 학교법인 정관 혹은 규정에 어떤 근거가 있나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에 따라 예우나 대우, 지위등도 각

이제 문제점은 드러났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개침' 하나를 등불로 청소년 교화의 횃불을 들어 올려야겠다.

이해 각종 불교신행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학수업마저 타고 과목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종립학교 포교활동의 부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신행 활동을 교법사만의 몫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이 곧 포교'라는 이념 아래 재단과 학교간에 청소년 포교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운영 현황

최근 발간된 '종립학교 운영 현황' 통계에 따르면 신입생중 불자학생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며 이 비율은 졸업시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를 건축이 넘도록 하는 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신봉하는 학생의 수가 중학교 37.6%, 고등학교 24.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독교등 타종교가 오히려 5.8%나 많아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 수록

수적열세는 더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에서는 주된 원인을 몇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 종립학교 교법사(학교당 1.8명)수의 부족과 교학, 일반수

업은 물론 포교활동까지 전담해야 한다는 것, 두번째, 각종 수련대회, 수계식을 비롯 등산적인 행사 이외에는 새롭고 특별한 신행프로그램의 부재, 세번째는 교직원들의 신심부족으로

신행프로그램 절대 모자라 교학수업 '입시'에 밀려 소외

우리학관 - 명성여고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자아 완성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명성여고(교장 문화웅)는 '수심당'이라는 교내법당을 중심으로 신입생에게 합장과 반야심경 독송등을 필수적으로 익히는 것에 서부터 포교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과반수가 넘는, 종교없는 학생을 비롯 기독교등 타종교 학생에게 불교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지니도록 하는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적 소양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불교교육으로 인해 명성여고는 입학당시 7%였

던 불자학생의 수가 졸업시에는 32%로 증가한 반면 기독교학생의 경우 38%였던 것이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신행활동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독경등 인성교육 불자 7%입학 졸업때 32%

시론

인간성 짓밟는 학원 폭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힘의 근원은 인간 사이의 신뢰이다. 상식의 저변이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와 관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일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는 그런 사회적 덕성을 훈련하는 장이다.

인간 도덕성의 개발과 사회적 협력의 훈련을 말하는 전통 유교교육조차 권력과 부(富)로 나아가는 통로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금의 교육은 조선조의 행태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분제에 의해 묶여 있던 사회적 상승의 제한이 평등과 민주주의의 이를 아래 명실상부한 기회균등을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科擧) 시험의 과목(?)이 문사적 인문적 교양과는 전혀 다른 행정적 상업적 공업적 제 실무로 전이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대중교육과 전문교육의 근대적 가치 아래 인문적 교양은 실상 뒷정리로 밀려나갔다. 이 사실이 지금의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얽혀 있다. 전문교육의 이념은 각분야에 대한 전문적 실무적 지식을 가르킨다. "이것이 힘이다"라는 배

이전의 모든 지식의 철저한 도구화로서 이어진다. 누가 더 알려진 지식, 파헤쳐진 지식을 정확하게 익히 이용할 수 있는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 그 지식은 사물과 관계하는 지식이지 사람 사이를 관계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등교육 시절은 하나의 주제로서 사람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연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제의 탄생이다. 그런데도 가정과 학교는 성적과 대학진입이라는 당면의 목표도 하지, 그리고 사회는 이 현실적 요구에 영합함으로써 아이들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유보하고 외면한다. 아이들은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자아의 근본적 분열을 겪는다.

출구 찾지 못한 아이들 우등생들은 거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영악한 아이들이다. 훨씬 인간적이기는 반발하는 아이들이다. 반발은 저항하거나 도피하거나 자학하는 세 가지밖에 없다. 지적 사회적 힘을 획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있어 저항은 불가능하고 도피는 어렵다. 유일한 길은 자학이다. 그 자학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길로 나타났고 하고 타인을 파괴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한다. 이 불의 기원은 깊다. 삼의 건전한 에너지가 적절할 출구를 찾지 못한 병든 에너지라는 점에서 매저

기층이든 새디층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방구석에 처박힌 우물쭈물 의아나 배반에서 떨어져 내리는 아이들의 매저기층은 불행하긴 하지만 위험하진 않다고 안도하는 것이 어른들이다. 이에 대해 새디층적으로 표출되는 학생들의 폭력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 것 또한 어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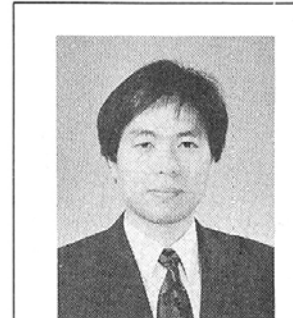
창조동력으로 바꾸자 학교 안의 폭력이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공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매스컴과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는다. 원인은 우리가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고 근본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각자가 그 절망적 폭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자임을 수사(修辭)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의 부모는 진정 물어야 한다. 나는 우리 아이를 그 자율적 정서

가치로 일류대학과 그에 이르는 사다리인 성적을 우상화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그 불모로 잡고 있지 않은가. 최근 한 기업은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놓았고, 정부 또한 알기위주가 아니라 인성과 생활의 제부면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구상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이 만일 변모하는 사회적 코드를 따라잡는 발빠른 적응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른 형태의 우울과 폭력에 허덕일 것이다.

다가오는 세상의 사회적 코드가 건전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시계를 되돌려 놓기에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 지구화의 시대는 역으로 가치가 다원화될 수 있는 시대이고, 그렇기에 사적 창조와 공산 또한 다양하게 가능한 시대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폭력의 황폐한 에너지를 창조와 동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 가정과 사회, 학교와 국가가 능동적 자각적으로 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고 그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한형조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현대만평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종립학생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 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윤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종풍 입제에는 수의(壽貽)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만민이 애국 및 이삭집업에는 예악이 끊기 울성이다. 을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늬와 땅, 남년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을 이루 을해 낱은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재물과, 수의를 마련하면 재물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을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윤신은 95.9.18 보도내용)

장례 토랄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팀 24시간 장례행사 대행(전국제인연결) 묘지상담업선 파출부, 도시락(음식)업선 현재 평생회계제도 운영중(91년시행)

(주)원품은 손상에 전문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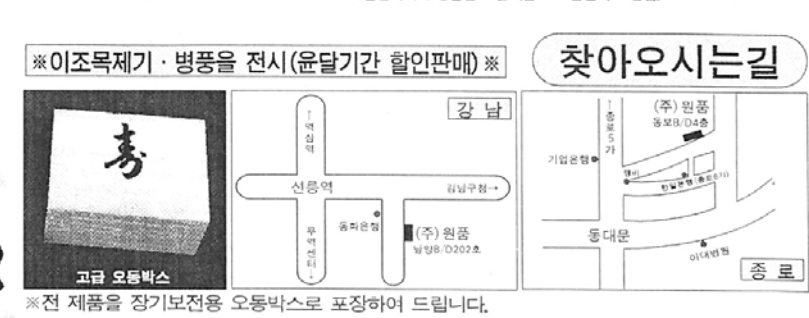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년이화회, 병소녀사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 조건표

Table with 4 columns: 품명, 시중가, 행사가, 비고. Rows include 4호(마), 3호(천연마), 2호(보성포), 1호(특산삼베).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funeral homes and service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in Gwangju.